

제 12 강 엘리사의 죽음: 죽어서도 승리와 생명을 주다(왕하 13:14~25)

역사적 상황

1.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숙청(9~10장)
2. 유다: 이세벨 딸 아달라 폭정.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(11,12장)
3. 예후 가문의 통치(4대 동안 이스라엘 통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. 10:30)
 - 1) 예후: 28년 통치. 바알 숭배자들은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음(10:31)
 - 2) 여호아하스 17년, **요아스 16년 통치**.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감(13:1~2, 10~11)
4. 아람 왕 하사엘의 학대: 예후 때 시작(10:32,33), 여호아하스 당시 최고조(13:3~7)

I.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(13:14~19)

1. 엘리사가 죽을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반응(14)

- 1) 그에게로 내려와 눈물을 흘림
- 2) “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”(참고. 왕하 2:12; 3:1~27; 6:8~7:20)

2.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준 두 가지 승리의 징표(15~19)

- 1) 첫 번째 징표(15~17)
 - a. 행동 명령(15~17a): 활과 화살을 가져 오라 / 활을 잡으라 /
(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)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
 - b. 의미(17b):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.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
- 2) 두 번째 징표(18,19)
 - a. 행동 명령(18): "화살들을 집고 땅을 치소서" but 이스라엘 왕이 세 번 치고 그침.
불순종은 아니지만, 선지자의 말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(믿음과 결심의 부족)
 - b. 엘리사의 분노(19): 왕이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. But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칠 것

II. 엘리사의 죽음 이후(13:20~25)

1. 엘리사의 묘실에서 일어난 기적(20,21)

- 1) 엘리사의 죽음과 장사(20): 엘리야와 달리 죽음과 장례와 썩음이라는 보통 과정을 겪음
- 2) 장사 지내던 자들이 도적떼 보고 던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남(21)

2. 엘리사의 예언 성취(아람에 대한 승리)(22~25): 요아스가 아람을 세 번 쳐서 무찌름

- ☞ 1) 그는 죽어서도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과 승리 부여: 회복 시작. 여로보암 2세 時 전성기
- 2)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가 엘리사의 가르침과 그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접촉하면, 우리는 살아날 것이며 패배는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(겔 37:1~14).